

“ 사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

■ 이종윤 원로목사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는 한 위대한 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 춘하추동,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분의 위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흐하는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있어 그 앞에 목석같은 사람도 마음이 뜨겁게 녹아지고 평소엔 눈물 한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 분 앞에 서는 날엔 후회와 분노와 억울한 눈물을 터트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분의 이 큰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 분이 누구일까요?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의 위력에 대결할 수 없는 그 분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 황금이나 권력 아니면 왕 중 왕, 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가 침입해 올 때 모든 것이 훼손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이 사망이 우리 모두의 원수이므로 인간은 사망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얼마나 큰 원수인가? 사망은 가족을, 친구를 우리의 품에서 빼앗아가며 그래서 산 자들의 멸망 받을 원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크게 이기셨으며, 사망의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딤후 1:10)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가장 나쁜 의미의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므로 아무도 불로장생 할 수 없으며, 큰 나라의 군주라도 사망을 매수할 재물이나 힘이 없고 그도 무덤으로 내려가 부패의 덩어리로 바뀌게 되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망은 우리 중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전에는 원죄로 인해 사망이 기다렸고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이런 의미에서 사망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가 모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으며 그러므로 어떠한 신자도 이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지 아니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두 번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의 몸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 타는 불의 전차로 연회장에서 “친구여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왕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폐하셨으므로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고전 15:56) 사망은 죄를 표적 삼는데 그 죄는 대속자께서 그의 희생으로 그 썩의 표적을 없애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르지만 거의 해를 끼치지 못하고 무덤은 텅 빈 지하실이나 음산한 납골당이 아니라 휴식의 방이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잠시 머물 기숙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광스런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사망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기념비적 승리 이후에 그는 사망을 매일 정복하고 계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사망이 원수지만 다른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와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에 사망이 멸망 받기 전에 쓸모가 있고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 마지막에 멸하신 것입니다. 죽어 가는 이가 사망 앞에서 덧없는 장난감들 위해 살아야 했던 것을 깨우치게 하고 신령한 지혜에 대해 엄숙하게 설교하고 있으며, 사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정적 사랑(순교)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이 성도들을 똑바로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아직 멸망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죽는다면 미래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싸움은 끝났고 영원한 승리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승리를 거두었나요? 우리 모두는 그 분께 준귀, 영광, 위엄, 능력, 권세의 힘을 영원히, 영원히 돌립니다. 우리의 진지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한국강로신문 [제 1683호] 2020년 4월 11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5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하는 교회에서의 1,2,3부 예배와 각 처소에서의 온라인 영상예배를 함께 드리며, 1,2,3부 예배 모두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은 아래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1004_sermon.jpg


아울러 교회예배에 참석하려는 성도님들 중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 예배와 다른 시간의 예배로 옮겨 참석할 성도님 또는 새로이 참석을 원하는 성도님만 다락방장이나 교구간사님들께 알려주시고 1,2부 보다는 가능한 약간의 여유가 있는 3부 예배를 이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지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네(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르(브로이), 필리몬, 프란소, 수레시, 수버시, 알로롱, 비사부(뽀, 보다소프, 린통, 수린준(벵골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인(필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서울교회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

■ 고전 4:1-5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역자들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판단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평가 역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사람의 판단에 개입치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4절 끝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정의 판결을 확정적이라고 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진작 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3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가 끝이 아니라 최후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벽한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피조물인 우리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분별하라는 명령은 있습니다.(마 7:1-2) 로마서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롬 1:32-2:1)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군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법관이나 최고의 법을 다루는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의 일이나 언제나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알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물(Jure Divino)에 따라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옳고 그름, 유익과 무익, 정통과 이단,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순결한 것을 구분하여 마땅히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2.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나가기까지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에서 유죄로 정죄되기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죄인임이 분명해도 최후의 심판 날에 판단 받기 전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동시에 로마서 8:1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을, 옳음과 그름을,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공정과 불공정을, 평등과 불평등의 기준은 사람들의 일반상식적인 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분별이 완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난 것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시므로 사람의 판단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판단이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해서 유죄 받아야 할 자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일은 이 땅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오직 공의로온 심판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는 전능한 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5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행실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교훈한 것이 이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17, 23).

맺는 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관이신 우리 주님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며 덕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84:5-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5(시 4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5(2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4:6... 인 도 자
사명자대회발대식	(1부 예배 시)... 말 은 이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기룩한 말씀 밖에 남아지 말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546(39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함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이불로를 들 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 로 남아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전 4:6)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3:10-11 인 도 자
찬 송	22(26)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창 17:15-27 인터넷 영상
설 교 ... “말씀하신 대로” ...	인터넷 영상
찬 송	285(209)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전 12:13-14 인 도 자
찬 송	304(40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딤후 2:14 인터넷 영상
설 교 ... “재앙 ·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	인터넷 영상
합심기도	인터넷 영상
주기도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 임

1. 정기당회 / 10월7일(수) 오후 7시 104호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결 혼

1. 지현근 군(9교구 지성철 집사, 유묘중 권사의 장남)과 정예리 양(정태주 장로, 조영옥 권사의 장녀) /

10월10일(토) 오후 12시 어린이회관 근화원 야외 한옥 예식장(010-6846-6489) /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09명	225명	1,534명	239명	1,26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9/2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27일	현 금	32,964,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잡 비		5,500,000
	교회학교운영비		267,500
	찬양운영비		6,890,000
	출 판 비		1,210,000
	복리후생비		485,300
	통 신 비		496,740
	수도광열비		543,210
	차량유지비		349,600
	소모품비		795,000
	세금과공과		3,984,590
	환경유지비		141,600
	수선유지비		242,000
	식당운영비		368,710
	합 계	32,964,000	103,095,25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 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 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